

New Attraction



전송이 Song Yi Jeon &

비니시우스 고메스 Vinicius Gomes

본토 재즈 시장에 던진 멋들어진 출사표!

필자가 전송이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것은 피아니스트 박보람의 첫 앨범 <Hear the Beauty>이었지만, 실제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기억하게 된 작품은 그녀의 첫 앨범인 <Straight>에서부터였다. 두 작품 모두 햇수로 9년 전인 2014년 처음 공개되었는데 그 당시만해도 해외에서 보컬로 활동하는 경우가 나윤선 외엔 전무하다시피 했던데다, 이렇게 나무랄 데 없이 전 방위적으로 음을 소화해내면서 발성에 흥결을 잡기 어려운 탄탄함을 지니고 있는 가수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없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었다. 난이도 높은 스캣과 작곡된 라인들을 소화해내는 능력, 미성과 탁성, 배와 가슴, 머리를 모두 유연하게 다루는 발성역량에 호흡 컨트롤 능력, 무엇보다 현대적인 재즈 언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녀의 보컬 역량은 인종과 국적을 넘어서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요인!

그런 그녀가 4년 만에 새로운 앨범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자신의 노래와 기타 이렇게 듀오 편성으로 연주되었는데, 이런 소 편성으로 작업한 건 그녀의 커리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브라질 출신의 기타리스트 비니시우스 고메스와 함께 쇼로의 성격을 띤 브라질 음악들을 기반으로 모던한 재즈 접근방식을 엮어내고 있는데 그녀에 의하면 재즈이외에 자신의 음악적 근간, 영감의 주요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브라질 음악이라고 한다. 미국 유학시절 이 음악에 눈을 뜬 이후 깊이 매료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작인 <Movement of Lives>의 몇몇 트랙들은 본작과 음악적 성격이 직접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쇼로의 중요한 정서적 근간인 애수, 서정성과 노스탤지어적인 면들을 머금고 있는 그녀의 오리지널 곡들은 특정 곡을 하나 꼽기 어려울만큼 고른 레벨을 보여주며 그중 가사, 그것도 한국어로 노래하고 있는 'Expecting Spring' 같은 곡에서 귀를 잡아끄는 매력을 들려준다. 그런가 하면 피아니스트 지미 롤스의 명곡 'The Peacocks'의 보컬 버전인 'A Timeless Place'나, 키스 재럿의 오리지널 'Prism'의 재해석 버전은 이 작품의 호감도를 더 끌어올리는 요인. 개인적으로 나윤선에 이어 미국과 유럽 재즈 신에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재즈 가수이자 나윤선이 시도하지 못했던 영역에 이미 발을 들여놓았다 측면에서 반드시 주시해야할 뮤지션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듀오 앨범은 가수로서의 역량은 물론이고 그녀의 음악성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으며 트럼페터 데이브 더글러스가 자신의 레이블을 통해 앨범을 발매한데다, 미국의 다운비트에서 평점 별넷반을 부여할만큼 그 동네 관계자들에게도 포착된 상황이기에 길지 않은 시간안에 커리어의 반동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M**



<Home>

Greenleaf / 2022

Song Yi Jeon, voice
Vinicius Gomes, guitar

1. Eleven Houses
2. Dancing Stars
3. Prism
4. Expecting Spring
5. Albany
6. Milonga Gris
7. Flow
8. A Lonesome Place
9. A Timeless Place
10. Nilopolitano

글_ 김희준